6대 종교, 기후비상사태 극복 나선다

종교환경회의, 종교인 기후행동 선포식

9월 22일 소태산기념관서 "대전환 희망 계기" 발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6대 종교인들은 9월 22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2020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하고 종교인 기후행동을 선언했다.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확산되고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대 종교계가 이같은 상황이 범지구적인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교인들은 9월 22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2020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하고 종교인 기후행동을 선언했다. 종교환경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불교기후행동 대표 미광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기후위기를 대전환의 희망으로'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행동과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종교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정부가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각 종교가 교리에 근거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실천을 통해 큰 변화와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지구적으로 닥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공유했다. 종교인들은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해양생태계 붕괴,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 대규모 산불과 가뭄, 강력한 태풍과 폭우 등 이상기온현상을 꼽았다. 또 토양이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확대돼 농업생태계도 위기에 처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은 물론 기후 불평등으로 인한 수천만의 기후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계변화의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물질적 경제성장이 인류의 발전을 대표해서는 안되며 자연의 유한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두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 관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며 모든 생명들이 평등한 존재로서 그들 고유의 권리가 존중되는 관계로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항목으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널리 알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확립 △생태적 정의를 세우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행동 등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대전환의 희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종교인들은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우울한 파국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해 희망찬 세계를 향한 밝은 기회이며, 굴절된 삶을 올곧게 펴는 거대한 전환의 계기"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규범과 지침을 만들어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힘을 모아 전 지구적인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및 총체적인 범국가적인 대응기구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지도자들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원행 스님은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발원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 선언이 개개인의 실천으로 확산돼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봉암사서 '간화선 대법회' 열린다

참선지도자協 1차 총회 수좌복지회와 진행 협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제1회 총회.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대중화하기 위해 내년 문경 봉암사에서 '간화선 대법회'가 봉행된다.

(사)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는 9월 14일 참불선원 2층 카페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들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투명 아크릴판 설치,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가 진행한 제4기 참선아카데미 명상대강좌 보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된 명상대강좌에는 107명 정원 마감 후에도 추가 신청이 이어지는 등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었다.

이어 11월 20일~22일에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명상포럼 해인사 집중수행'과 선(禪)명상지도사 1급 자격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내년에 봉행되는 '제4회 간화선 대법회'에 대한 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조계종조 도의국사 간화선 전래 1200주년 기념 및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과 함께 진행되는 '제4회 간화선대법회'는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서 7일동안 진행된다. 봉암사 개산 이래 7일 동안 산문을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간화선 선지식 7명이 법사로 나서며 6박 7일의 특별집중수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제4회 간화선 대법회' 기획안을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영진·일오)의 추인을 받은 후 수좌선문화복지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제1회 총회에는 이사장 의정 스님, 회장 각산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선법 스님, 대승사 한주 정과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BTN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 이용태 한국총명상협회 운영위원장, 김순철 참선아카데미 동문회장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반도 평화 위한 1억명 서명캠페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1억명의 뜻을 모아낼 국제적인 서명운동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지도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해 눈길을 끈다.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명예대표 원행) 운영위원회는 9월 22일 유튜브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채널을 통해 전세계 1억명 서명 동참을 호소하는 7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상을 일제히 공개했다. 원행 스님은 해당 영상에서 "한반도 종선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손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종교인 모두 평화로 가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한·일 장애인불자, 詩로 세상과 만난다

보리수아래, 11월 20일 〈바다건너~〉 출간 예정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불자들이 장애와 국적을 뛰어넘은 시적 감수성으로 세상과 만난다.

문화를 사랑하는 장애인불자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한국·일본 장애시인들의 시를 담은 공동시집 〈바다건너 우리 만남은〉 출간계획을 밝혔다. 2020 아시아 장애인 공동시집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집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양국 언어로 번역돼 11월 20일경 출간될 예정이다.

공동시집에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시인 8명이 직접 써내려 간 시와 글 42편이 실린다. 각국 시인들의 진솔한 삶과 감성을 담아낸 시들은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돼 공동 수록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김소영(지체장애인), 장효성(지체병변장애), 유재필(지체장애), 정상성(뇌병변장애), 홍현승(뇌병변장애), 최명숙(뇌병변장애) 등 보리수아래 소속 시인들이 참여했다. 모두 시를 통한 사회적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시인이자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시인은 우에다 시케루(척수소뇌변성증), 호리에 나오코(뇌성마비장애) 등 2명이 참가했다. 우에다 시케루 씨는 소설가이자 시인, 작사·작곡, 피아노 연주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문화인일 뿐 아니라 자신의 투병기를 비롯한 수권의 저서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산시켜 온 대표적인 인물이며, 호리에 나오코씨는 개인시집으로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유명시인이다.

보리수아래는 매년 아시아국가 한곳을 선정해 장애인공동시집을 발간해 왔지만, 이번 한일 공동시집은 추진과정부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부터 발간을 준비해 왔지만 국내 반일정서가 확산되는 등의 상황에서 한차례 연기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일본 장애시인 섭외는 물론, 공동시집 발간을 위한 활동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던 중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화가 코마츠 에리코·김동욱씨 부부가 일본작가 섭외와 번역 등에 적극 나서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발간 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아시아장애시인공동시집은 장애시인들에게 작품 발표 및 문화예술 활동의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까지 이어가는 유일무이한 사례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올해 공동시집은 참여시인들 모두 작품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시인들인만큼 모두에게 더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지희 기자

포교사 선발·기념식도 비대면으로

9월 19일 포교원·국제포교사회 '언택트 행정' 눈길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이 포교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19일 '불기2564년 제14회 전문포교사 선발'을 온라인 화상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포교원이 진행한 온라인 화상 면접.

이날 온라인 화상면접에는 신행지도,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의 서류전형을 통과한 85명이 응시했으며, 대면방식 때보다 더욱 활발한 자기소개 등을 진행했다.

포교원은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화상면접을 앞두고 응시자들의 적응을 위해 2일 전부터 사전 조율을 거쳐 면접을 진행했다. 84명은 화상 면접을 소화했으며 1명은 개인사정으로 영상통화로 면접을 진행했다. 제14회 전문포교사 합격자는 10월에 발표된다.

포교원 측은 "포교국장 회의 등은 진행했지만 포교사 선발과정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방식"이라며 "면접자들이 오히려 긴장감을 덜고 편하게 응시했다. 앞으로 다양한 선발, 자격고시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도 전법회관에서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창립 22주년과 사단법인 문화나눔 6주년 창립 기념법회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敎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김갈수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원
종의회부의장 김세운·김우영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 화 (043)423-7100 팩스 (043)420-7399
홈페이지 www.cheontae.org